"김용근 선생님의 참교육 뿌리 내리길"

'김용근 민족 교육상'에 김용택 선생 선정

강진 출신 김용근선생 정신 계승위해 제정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전개 등 기여
전교조 운동 투신…교육민주화 운동 주도
퇴임 후에도 저술활동 등 참교육 전파 노력

"부족한 사람에게 큰 상을 준 것은 김용근 선생님의 민족·민주·통일 교육의 길을 이어가라는 죽비로 생각합니다."

제26회 김용근 민족교육상 수상자로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김용택(75) 선생이 선정됐다.

김용근 민족교육상은 독립유공자이자 5·18민주유공자인 강진 출신 김용근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김용근 민족교육상은 김용근선생기념사업회(회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기념사업회)가 주관한다.

기념사업회는 "김용택선생이 교단 안팎에서 평생 참교육을 꾸준하게 실천해온 교육운동가라는 점이 김용근 민족교육상 취지에 맞아 제26회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된 김용택 선생은 경남 마산에서 초·중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전교조 운동에 투신했다. 1989년 초대 전교조 위원장 권한대행과 전교조 부위원장 등을 맡아 교육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다. 90년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 투옥되는 고초를 겪었으며 4년 만에 복직돼 교육현장에서 참교육을 실천한 대표적 교육운동가다.

김 선생은 지난 2007년 정년퇴임 후에도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저술활동과 블로그를 운영하며 참교육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 선생은 "비인간적인 입시교육 현실에서 참교육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강조해 왔다"며 "참교육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 학부모,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려 참교육의 지평이 넓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선생은 (사)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을 조직해 헌법읽기 국민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그는 헌법읽기 운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는 참교육 운동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근 선생은 평양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교육활동을 벌이다 일제에 의해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 광주일고와 전남고 등 교사로 재직 중 유신반대 학생시위에 책임을 지고 교직을 사임했으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돼 구속됐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1995년 김용근 민족교육상을 제정했으며 지난 2017년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흉상을 건립했다.

제26회 김용근 민족교육상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광주학생교육 문화회관 김용근선생 흉상 앞에서 거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버이날 외로운 어르신들에 효실천 행사

광주석산고총동창회
손편지에 선물도 전달

광주석산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염장곤)와 총동문회 봉사단(단장 유재신)은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노인들을 찾아 효실천 행사를 개최했다.

총동문봉사단 50여 명은 최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하남주공 경로식당에서 독거노인 187명을 초청해 손편지를 직접 써서 읽어주는 한편, 카네이션 100개와 돼지갈비 100세트를 준비해 전달했다.

유재신 봉사단 단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로당 식당 운영이 중단돼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더할 듯 싶어 석산고 동문들끼리 짝을 지어 어르신 세대를 찾아 선물을 전달했다"며 "손편지를 읽어주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갈비세트를 전달하며 어버이 은혜 노래도 불러, 모두가 뿌듯한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다.

총동문회는 매년 동문들의 후원을 받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편 석산고 총동문회는 지난 2014년 석산장학재단을 설립해 매년 후학들에게 6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장학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체대생 故유지웅씨 부모 1억원 기부

23년전 전투경찰 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유가족 "돈 없어 운동 포기하는 학생 없길"
재단 '푸른등대 유지웅 기부장학금' 신설
저소득층 체육전공 대학생 생활비 지원

23년 전, 전남대 체육대학 출신으로 의무경찰(당시 전투경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고(故) 유지웅씨 유가족이 최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에 1억원을 기부했다.

유가족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업 지원에 써달라며 유씨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전달했다.

유가족 측은 "고인이 된 아들의 못 다한 꿈을 장학생들이 대신 이뤘으면 한다"며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재단은 '푸른등대 유지웅 기부장학금'을 신설하고, 학기마다 저소득층 체육계열 전공 우수 대학생 5명을 선발해 생활비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7월부터 2020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저소득층 체육계열 전공 우수 대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기부해주신 유가족들의 숭고한 뜻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유가족들의 뜻대로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1997년 6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한양대 앞 시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1994년 농구특기생으로 전남대 체육학과에 입학했던 그는 96년 2월에 입대해 경남지방경찰청 502전경대 소속 상경으로 복무했다. 유씨는 국립서울현충원 경찰 묘역에 안장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복회, 최재형상에 故김상현 의원

광복회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을 기리는 '최재형 상'을 제정하고, 1회 수상자로 고(故) 김상현〈사진〉 의원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광복회는 "김 의원은 투철한 역사 의식으로 민족 정기 선양에 공헌했고, 특히 생존 독립운동가의 품위 유지비 지원 정책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한인사회 독립 운동의 대부다.

1935년 장성에서 태어난 고 김상현 의원은 1965년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중당 후보로 당선됐으며 6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1971년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를 주도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따돌리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박정희 정권 때 '유신 반대운동'을 주도했으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모진 옥고를 치렀다. /연합뉴스

롯데아울렛·마트 광주월드컵점 복지관 방역 봉사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과 롯데마트 월드컵점 임직원들은 최근 지역 노인복지관과 아동보육시설을 잇따라 방문해 방역봉사를 펼치고 어린이 선물을 전달했다. 〈롯데쇼핑 제공〉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20주년 기획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기막힌 유산(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그 남자의 기억법(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야생여정(재)	00 본 어게인(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호기심대장 카토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UHD 숨터(재) 55 착한 소비 프로젝트 우리 함께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뉴스브리핑
3	30 미니다Q(재) 55 UHD 숨터(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랑(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스페셜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5 MBC 뉴스 3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위험한 약속	3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8	30 기막힌 유산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스페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40 굿캐스팅
10	00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55 더 라이브	00 본 어게인	05 스트레이트	
11	3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5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개는 훌륭하다	00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50 다큐 인사이트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네트워크특선 〈핑크피쉬〉	20 나이트 라인 50 앙코르 고향견문록 스페셜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출동! 슈퍼윙스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픽시
09:30 페파 피그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경이로운 지구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3:00 EBS 다큐프라임
13:50 싱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14:40 마샤와 곰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5:00 해요와 해요
15:10 꼬마버스 타요(재)
15:2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15:40 뽀롱뽀롱 뽀로로(재)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16:10 픽시(재)
16:25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출동! 슈퍼윙스(재)
17:35 페파 피그(재)
17:45 세미와 매직큐브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19:00 형사 가제트
19:30 최고다! 호기심딱지
19:45 자이언트 펭TV
20:00 돈이 되는 토크쇼 - 머니톡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적도와 오로라 사이, 에콰도르 캐나다 -봄의 왈츠, 암바토〉
21:30 한국기행 〈오월의 부엌 1부 바다 위의 만찬〉
21:50 EBS 다큐프라임
22:40 한국영화 100년을 돌아보다 -내 인생의 한국영화
23:30 경이로운 지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1일(음 4월 19일 甲寅) ☎010-9790-8237

子 36년생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느니라. 48년생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60년생 역량을 발휘하고 정성을 다 해야만 한다. 72년생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4년생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가 필요한 때이다. 96년생 여건의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49, 74

丑 37년생 성사 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49년생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 61년생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73년생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85년생 안정적인 구도로 가는 것이 지혜롭다. 97년생 시원스럽게 펼쳐지고 있으니 절반은 이룬 셈이다. 행운의 숫자 : 92, 84

寅 38년생 초기에는 힘들지언정 끝내 이룰 것이니 행하라. 50년생 의외의 방해자가 보이므로 대비해야겠다. 62년생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겠다. 74년생 조금만 더 진력한다면 성과의 윤곽이 보일 것이다. 86년생 구름이 빠르게 밀려가면서 맑게 개는 이치이니라. 98년생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선택하자. 행운의 숫자 : 55, 68

卯 39년생 잠시 숨고르기를 해야 할 시기이다. 51년생 자신감이 생긴다. 63년생 주기적인 리듬을 타면서 반복되리라. 75년생 구분을 해두어야만 한다. 87년생 한계점에 이르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99년생 일정한 곳에 안전하게 둬야만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05, 72

辰 40년생 판세를 확실히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52년생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다. 64년생 뼈아픈 갈등을 하리라. 76년생 미진하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88년생 가볍게 나타나는 전조를 무시한다면 당황하게 된다. 00년생 만사를 차치하고 과감하게 행 하자. 행운의 숫자 : 12, 51

巳 41년생 중요한 시점이니 흐름을 파악하고 난 후에 체계를 잡아야한다. 53년생 상대의 마음을 읽고 처신하여야 자연스럽다. 65년생 탓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살펴볼 일이니라. 77년생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다. 89년생 흉이 변해 길해지니 뜻대로 되리라. 01년생 소홀히 대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6, 76

午 42년생 약진하는 길목에 들어서고 있느니라. 54년생 매끄러운 기교가 효과적이다. 66년생 면전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하고 떠들어도 별 것이 아니니 결코 놀랄 것까지는 없다. 78년생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90년생 지금은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옳다. 02년생 입장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4, 99

未 31년생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43년생 양어깨가 무거울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55년생 오판하면 많은 피해가 따를 것이니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 67년생 해묵은 것을 버린다면 새로운 것이 생길 수도 있다. 79년생 나가는 것이 많을 수 있으리라. 91년생 진정성을 보여 준다면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5, 87

申 32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44년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 56년생 치밀하지 않으면 헛수고만 반복될 뿐이다. 68년생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간다면 부가 따른다. 80년생 염원해 왔던 바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능률이 오른다. 92년생 영예로움으로 인한 기쁨이 크다. 행운의 숫자 : 37, 88

酉 33년생 겉으로는 뜻을 같이 하는 체 하지만 속마음은 제각각이다. 45년생 표리가 부동하니 주의하지 않으면 속는다. 57년생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69년생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유용하다. 81년생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으니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겠다. 93년생 확실하게 수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73

戌 34년생 가까이 다가서야 하느니라. 46년생 값어치를 따져서 판단할 일이로다. 58년생 선제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다. 70년생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82년생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 94년생 낭설에 신경 쓰지 말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자. 행운의 숫자 : 39, 57

亥 35년생 약간만 더 주력한다면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 47년생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 했던 새로운 기회를 접할 수 있다. 59년생 일시적으로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느니라. 71년생 고뇌는 삶을 승화시키기에 충분하다. 83년생 강인한 정신과 굳센 추진력이 필요하다. 95년생 예상 했던 바와 틀림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40, 94